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2008 신년사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 여러분!
2008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많은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의 격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부처로서 중심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로 남겨두었던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며, 국정운영 중추부서로서의 역량을 이미 테스트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댈, 덜 받는' 수준에 그쳐 원래 의도했던 대수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적립 기금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추게 됐습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떼어내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회로 독립시키는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기금운용방식이 합리화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2007년은 복지부가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이 필요한 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를 선보였던 해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나 활동보조 같은 서비스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외에도 희망스타트 프로그램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등 저소득층 아동

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본격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40세, 66세 국민들에게 실시된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진단' 서비스는 국가건강관리체계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여러분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혁신의 대상자가 된 저소득층 여러분, 또 2007년 8월부터 장애인 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폐지 대상자가 된 경증 장애인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정책 전환을 묵묵히 수용해주시고, 때론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비판으로 보건복지 직원들을 늘 깨어있도록 다그쳐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1월부터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또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한분 한분의 헌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현장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갑시다. 공직자의 일하는 자세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늘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단시간 내 수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세웁시다. 차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해 나갑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성큼성큼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모토였고, 앞으로 변함없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시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루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2008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 순 형
한국건강관리협회장

戊子年 새아침, 국민 모두의 건강 실현을 바라며...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먼저 국민건강을 생각하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 협회가 공익 보건의료봉사기관으로서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제반 업무에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국민과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국민 건강의식 고취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 그리고 개발도상국 보건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사업과 국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봉사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여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자년 새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협회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지속적 수행과, 새로이 수립 시행될 국가 건강증진 계획에의 능동적 참여로 국민건강증진의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국가 제도권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즉 국가 암 검진사업과 생애주기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의 적극 참여 및 수행, 지방자치단체 특이 건강증진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구축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오랫동안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공익정신에 입각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신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는 사회 공익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아갈 것이며 기존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공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봉사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육·홍보사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및 질병 고위험군 대상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보건소 및 사회공헌협의회 등 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전한 건강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의 주요목표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정도관리를 위하여 의료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더욱 수준 높은 검진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및 개발도상국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협력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늘 새로운 기대와 다짐으로 설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해의 각종 포부와 계획과 더불어 협회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업무여건 개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물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08년 1월 2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이순형

